

#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金 聖 洙\*\*

## 〈목 차〉

- |                        |                                   |
|------------------------|-----------------------------------|
| I. 서론                  | 3.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br>설정의 개선 방안 |
| II. 문헌정보학 교육과 학부제      | IV.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과과정                |
| III.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 V. 결론 및 제언                        |
| 1.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현황      | Abstract                          |
| 2.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 현황      |                                   |

## I. 서 론

근자에 한국의 대학은 '대학개혁' 및 '대학종합평가'라는 교육개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분주하다. 특히 올해 출범한 국민정부는 '대학학과 평가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이를 국가의 경쟁력과 연계시키려고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에 따른 변화의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방에 따른 외국대학 분교의 진출이 예상됨으로써 국내대학의 경쟁력 여부가 문제시 된다. 둘째, 대학편입제도의 대폭확대로 인하여 계열을 무시한 상태에

\* 이 논문은 1998~1999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특별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2 圖書館學論集(第 28輯)

서 학생의 전국적 이동 특히 수도권(서울·경기) 대학으로 편입이 급편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셋째, 대학내 轉科의 허용으로 인하여 각 과마다 학생이동이 빈번해지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로 인하여 기존 학과의 재조직 또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sup>2)</sup> 넷째, 전국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현재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불과 6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위 '학과중심 학부제' 즉 '학과별 입학제'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다섯째, 최근 교육부는 1998년 2월 24일에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생정원을 '募集單位'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sup>4)</sup>으로써,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을 모집단위로 하여 학생정원을 관리하는 이른바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타대학 학점인정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대학 학생수의 감소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다. 일곱째,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떤 개인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졌고, 기록매체

- 1) 교육부가 1997년 9월 20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96학년도 2학기~97학년도 1학기) 다니던 대학을 바꾼 편입학생은 모두 27,919명으로, 전년도 13,928명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각 대학교에서 군입대자 등 휴학으로 인한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도 학기 기준에서 학점기준으로 바꾸는 등 편입학의 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상기 1년간의 지역별 편입학생 수는 서울 7,561명, 경기 5,457명, 부산 2,980명, 충남 2,147명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대학으로 옮긴 학생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가 13,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 7,361명, 인문계 3,959명, 예체능계 2,100명 등이었다(한겨레신문, 1997. 9. 21. 제22면 참조). 이 발표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편입학함으로써, 지방의 대규모 대학(매년 입학정원수가 3,000명이 넘는 대학) 하나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1998년 3월 현재, 올 1학기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한 지방대 학생은 모두 35,000여명, 지방대 등록금 손실액도 3,000억원을 넘는다(1998. 4. 26. KBS TV 9시 뉴스 방영, 관련 인터넷 자료)'고 보도하고 있다.
- 2) 예컨대, 기존 학과의 재조직 또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이 미비하여 발생한 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서는 무려 14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이 폐교되었고, 또는 현재까지 다른 기관과 통합하거나 다학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등 철저히 재조직을 강요받거나 이를 수용하고 있다(Tefko Saracevic, "Closing of Library Schools in North America: What Role Accreditation?," *Libri*, vol. 44, no. 3(Sept. 1994), pp. 190-191.). 특히 미국 최초의 도서관학교(Library School)를 설립(1887)하였던 콜럼비아대학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폐교(1992)와,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설하였던 시카고대학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폐교(1990)는 세계 문헌정보학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Stephen P. Foster, "Victimization in Library School Closing Theoric: a Response to a Library Quarterly Symposium," *Library Quarterly* Vol. 63, No. 2(1993), p. 199.). 시카고대학 문헌정보학 대학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학문분야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학제간 박사과정을 신설하였으나, 결국 이를 인접받지 못하여 폐교된 듯하다.
- 3) 한편, 학부제를 전폭적으로 채택한 대학에서 소수의 특정학과에 학생지원의 편중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과별 입학제'로 복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4) 대통령령 제15,665호.
- 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및 정보축적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數字圖書館(digital library)·'벽없는 도서관'·'가상도서관' 등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電子圖書館'을 통하여 개인의 정보검색 방법이 다각도로 개방되었다. 그 결과, 정보사회에서 사서의 도움 없이도 개인 스스로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래에 司書는 필요한가' 또는 '과연 사서가 특정주제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로 남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현상과 변화에 직면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적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세부적인 교과과정에 의하여 철저한 교육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문헌정보학 전공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의 생존과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명확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제시 및 실시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명시된 교육목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확립 및 실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서관/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환경에서, 사서의 역할은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정보를 가장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정보전문가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배경교육 및 개척적인 교과목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명확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이에 수반한 교과과정의 확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교육부는 1998년 2월 24일에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개혁과 변화는 학부제에서 기인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입장에서 본 학부제에 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둘째, 전국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1997년 9월 현재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1997~1998학년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될 학부제하에서의 교과과정 개편의 문제 등을 논술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정보학 교육과 학부제

교육부는 1995학년도에 「학과통합으로의 정책전환 추진계획」<sup>6)</sup>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복수전공제'와 '최소학점인정제'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학부제'를 도입하였다.<sup>7)</sup> 또한 교육심의회위원회의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sup>8)</sup>은 대학교육제도의 일대 개혁을 예측하게 하였다. 게다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996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 편람」<sup>9)</sup>의 내용은 대학 당국뿐 아니라 각 대학의 교수 및 재단<sup>10)</sup>과 교직원들에게 대학개혁에 관한 긴장감을 조성시켰다. 이같은 대학교육개혁과 관련된 정책<sup>11)</sup>과 이들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학부제 도입'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게 만들었다.<sup>12)</sup> 이와 같은 정부 당국의 '당근과 채찍'에 의한 정책은,<sup>13)</sup> 과연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현실상의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학부제가 정착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몇 년간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입장에서 본 학부제의 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97년 현재, 문헌정보학과 관련하여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6개교<sup>14)</sup>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26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기존의 제도에 의거한 이른바 '학과중심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6) 교육부, 1994년 10월 28일 발표.

7) 1995학년도부터 학과통합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8) 대통령자문기구인 상기 위원회에서 1995년 5월 31일 발표.

9) 대학교육협의회, 「1996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 편람」, (서울: 대교협, 1995).

10) 여기서 '재단'이란 사립대학의 경우를 말한다.

11) 대학교육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은 ①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②최소전공인정학점제, ③정원 외 학사운영의 자율화, ④대학평가와 재정의 차등지원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12) 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요지」, (서울: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1996), p. 42. 참고.

13)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학의 경우 재정적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상당수의 사학에서 이 정책의 충분한 검증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학부제를 경쟁적으로 수용하였다.

14) 문헌정보학과 관련하여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6개 대학은, '경기대학교·계명대학교·디성여자대학교·성균관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이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부제의 특징은, ①학부과정의 통합(학부제), ②이중전공제(복수전공제), ③최소전공인정학점제, ④교수의 업적 및 강의 평가제 실시, ⑤교수의 타교출신 구성비율 확대, ⑥보직비를 축소 등으로 세계화를 추진한다<sup>5)</sup>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학부제의 도입배경은 거시적으로는 각 대학간의 경쟁을 통하여, 미시적으로는 대학내 각 전공영역간의 경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인 것<sup>6)</sup>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육개방으로 인한 국내대학의 경쟁력 강화, 즉 21세기는 교육산업사회로서 교육도 국제간의 무한경쟁을 거치게 될 것<sup>7)</sup>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1957년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었던 요인으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 적용되는 기법중심의 실용주의 교육에 편중된 경향이 강하였다. 근자에는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이 정보사회의 제현상에서 나타나는 전자도서관의 구축 현상 등으로 인하여, 문헌정보학의 제영역 중에서 정보학영역의 교육이 위주가 되는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선진국(미국) 중심의 문헌정보학 교육경향에 관한 강한 비판도 없지 않다. 그밖에 문헌정보학과 교육이 도서관/정보센터 현장과의 괴리감이 큰 점에 대한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같은 문헌정보학 교육현황과 더불어, 1995년부터 <고등교육개혁안>을 통한 '대학종합평가제'와 '학부제' 실시의 구체적인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 교육부는 각 대학교에 다시 '학부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종래의 '학과중심제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sup>8)</sup> 또한 학부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점도 있다.<sup>9)</sup>

15) 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요지」, (서울: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1996), p. 20.

16) 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 p. 49.

17) 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1996. 6), p. 7.

18) 즉 학과중심제도의 문제점은, ①학과 세분화에 따른 전공교육의 권형성과 기초전공교육의 제한, ②취성에 맞는 전공 또는 학과선택의 어려움, ③학생과 교수층원 등의 방편으로서의 학과설치, ④교수의 강의 과다 부담, ⑤교수활용의 비효율성, ⑥교육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⑦중복된 교과목의 운영, ⑧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제한(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pp. 32-33.) 등을 들 수 있다.

19) 즉 학부제의 장점은, ①유사교과목의 통합함으로써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과를 토대로 하여 야기되는 폐쇄성 및 기성 극복이 가능, ②전문분야별 깊이 연구한 전문인력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문헌정보학과에 학부제를 도입하였을 때의 장점은, 문헌정보학주전공(제1전공) 학생들이 여타 학문에 관한 복수전공을 이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제전문사서(주제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활로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을 크게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타전공 학생들이 문헌정보학 전공을 볼 때, 자신의 주전공 학문분야의 지식정보처리를 위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을 제2전공(복수전공) 등으로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1997학년도 현재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32개 대학교 중 불과 6개 대학교만이 학부제를 수용한 실태에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학부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학부제의 수용비율이 불과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학부제에서 예측되는 여러 문제점 즉 학부제가 안고 있는 여러 단점들<sup>20)</sup>을 극복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起因한 듯하다. 그리고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하여,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에 따라 死藏되는 학문 분야가 발생하거나, 전공과목내에서 폐장되는 과목이 속출하게 된다면, 학문발달의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과거 문교부(현재 교육부)의 주도로 1976년부터 실시된 ‘계열별입학제’의 실패 및 ‘부전공제의 유명무실화’의 사례 등도 학부제를 선택 수용하는 데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sup>21)</sup>

문제를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제적 지식연마 가능, ③학생들이 자유롭게 강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④복수 혹은 다중 전공 가능. ⑤출입부 취업상태의 다양화(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p. 33.) 등을 들 수 있다.

- 20) 학부제/계열화의 문제점은, ①전공간이 서열화로 특정학문의 편중현상, ②학문의 균형발전 및 전문인력의 균형적 공급 차질, ③전공분야의 위축 가능성, ④대학원생 배경의 어려움, ⑤전공과목 수강인원 예측의 어려움, ⑥편중된 학과(학부)의 교수 충원, 공간 수급, 실험기자재 수급의 확대(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6. 6), p. 26.)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김명옥 교수는 학부제에서의 복수전공제의 문제점은, ①문헌정보학이 주전공이 되지 못하고 타학문 전공분야의 학습에 필요한 제2전공이나 예비 및 보조 학문 분야로 전락(轉落)할 가능성. ②복수전공제로 인한 문헌정보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학문연구에 이르기까지 기대되는 전공의식은 희박하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③(전공과목의 축소로 인한) 기초학문의 위축과 전공분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김명옥,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 130.)라는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21) 위와 같이, 문헌정보학과 교육에 있어서의 학부제는 아직도 이를 선택 찬동하고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듯하다. 예컨대, 1995년도에 학부제 실시 준비를 하였던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의경대학교 교육인문대학 대학 당국에 <“학부제 시행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문제는 학부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하여, 해당 학과에서 30-36학점만 이수하더라도 그 학과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헌정보학과와 경우, 학사학위수여자에게 '2급정사서 자격증'을 동시에 발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에서는 6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이수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부에서 30-36학점의 최소학점만을 이수한 학생에게도 과연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발부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신중하게 再考하여야 할 사안이다.<sup>22)</sup> 그러나 학부제하에서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추가이수학점을 과연 교육부가 수용할 것인가?의 의문이 수반된다. 예상되는 결과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교육부는 1998년 2월 24일에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에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募集單位: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한다"<sup>23)</sup>는 방침을 전국 대학교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곧 전국의 모든 대학에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국민정부는 '대학 학과 평가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이를 국가의 경쟁력과 연계시키려고 도모하고 있다.<sup>24)</sup> 이는 교육부가 1998년 4월 25일에 전국의 각 대학교에 통보한 <1998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각 대학교의 교육개혁의 평가<sup>25)</sup>와 관련하여 차후 대학을

---

전해>(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체문제" pp. 44-45.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학과 교수들의 '독립학부' 편제주장은 관철되지 못하였고, 그 차선책인 인문대학 인문학부로 편제되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경우, 이미 학부제를 수용한 상태에서 학부제의 특성인 '이중전공제'와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등을 수용하되, 신입생의 입학제도만은 종래의 '학과(입학)제'로 환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즉 구체적으로 "학부제 이대로 좋은가?"(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97학년도 1학기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삼기 건의문을 대학교 당국에 제출하였다)라는 학부제에 대한 수정의 건의문을 대학교 당국에 제출한 경우이다.

22) '학부제에 따른 사서자격증 부여 문제'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7년도 정기총회(1997년 12월 17일(수), 국립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에서, "문헌정보학과(또는 도서관학과) 졸업자나 문헌정보학(또는 도서관학) 전공자 중에서 전공과목을 5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공과목을 54학점 미만 이수한 졸업자나 전공자에게는 준사서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노력과 절차가 남아 있다. 문제는 특정학과와 편의를 위하여, 교육부가 학부제를 역행하는 법령의 개정에 동의하겠는가?에 있다.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2항, 참조

24) 서울신문, 1998년 4월 14일, 제1-2면, 참조

25) 위 시행계획의 취지는, 1)대학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강화, 2)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자동지원을 통해 경쟁

평가할 때 1)대학의 구조조정<sup>26)</sup> 계획수립과 추진의지, 2)학부제와 관련한 학생선발 및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의 개편 등<sup>27)</sup>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학부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 대학교는 그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리하여, 현재 학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이제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半強制的인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1998년 6월 현재까지 전국 각 대학교들은 학부제의 수용문제로 인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8)</sup> 아무튼 전국의 모든 문헌정보학과는 내년도인 1999학년도부터 또는 늦어도 2,000학년도 입학생 모집부터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요컨대 위와 같은 모든 현황들에 준거하여 볼 때, 향후의 문헌정보학 교육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명확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제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시된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 등에 의거하여 일련의 교과과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규교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명확한 교육목적과 교과과정에 준거하여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때 비로소 학부제의 장점들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현재 예측되는 학부제의 여러 문제점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 개혁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의 교육개혁 추진 動機 제공 → 「대학법 특성화·다양화, 유도, 3)특히 '98년도의 경우 경제 위기상황을 맞아 대학 스스로의 구조 조정을 유도 등의 항목을 내세워 2차년도(1996~1997)에 걸친 우수대학 선정·지원에 570억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있다.

- 26) 예컨대,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별로 학과통폐합, 경쟁력있는 학과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인건 대학 경쟁력 보유후과에 건네주는 방식의 <대학간 '빅딜'>로 학과 특성화를 유지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학과는 자연도태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2003년 이후 대학생수의 감소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문을 닫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인하고 있다(서울신문, 1998년 5월 25일자, 제23면 참조).
- 27) 그밖의 평가영역은, 교수임용의 투명성과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우수교원의 채용, 교수업적평가제), 유사학과 통폐합,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대학의 정보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들고 있다.
- 28) 학부제의 전면적인 실시계획으로 인한 각 대학의 반발과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그 실례로 학부제 도입후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인하여, <인기학과 "그만 외", 기초학문 "제발 외">라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사회면의 전면기사로 대두되는 현상(조선일보, 1998년 5월 26일자, 제27면 사회면 참조)도 나타나고 있다.



### III.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논술하기 전에, 먼저 교육학 등에서 논하고 있는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각각의 개념과 그 설정에 관하여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교육목적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따른 개념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게다가 ‘교육목적’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들이 서로 얽혀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교육목적’과 유사용어는 ‘교육이념’, ‘교육지표’, ‘교육방향’, ‘교육방침’, ‘교육지침’, ‘교육목표’, ‘수업목표’ 등의 용어가 있다. 박준영은 이들 용어에 관하여 개념상의 차이를 상세하게 논술<sup>29)</sup>하고 있다.

29) 박준영, 「교육의 이론적 이해」, (서울: 학지사, 1996), pp. 180-187.

첫째, ‘교육이념(educational goals)’은 교육의 이념적이며 철학적 개념을 포함한다. 즉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관념이기 때문에 고도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예컨대,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서 제시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이 교육이념에 포함될 것이다. 즉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 중 그 개념이 광범위한 최상위개념으로서 ‘대학교의 교육이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육목적(educational aims)’은 교육이념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현으로서 비교적 포괄적이며 궁극적이고 일반적이며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목적은 교육의 개념에 내재하는 원리 혹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목적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 추상적으로 진술되고, 일정한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광범하게 어떤 방향이나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교육 목적을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목적’은 교육과정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sup>30)</sup>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즉 ‘교육목적’은 국가와 사회가 지닌 교육적 의도를 알려주고 교육활동의 일반적인 방향을 표현해 주는 구실을 하는 상위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교육목표’라는 수준은 교육목적의 수준을 한층 명백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교육목표는 교육 목적을 실현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행동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교육목적에 비해 대체로 구체적이며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이 계획되는 교육의 실천적 방향제시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교육목표는 어떤 교수를 통해서 개인이 성취해야 할 결과를 표현하되,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단계에서의 교육목적은 과학적·심리학적 차원에서 해석되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전문가적인 교육자로 하여금 그들이 보다 특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 방향을 주며 순서를 제시한다. 교육목표는 교육목적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교육목적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목적에 비해 덜 포괄적이고 그 적용기간 또한 짧다.

넷째, ‘수업목표’는 일반적 교육목표에 대해 실천적 수업목표로 불릴 수 있는 수준으로서, 수업현장에서 그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실천목표’ 혹은 ‘행동목

위와 같은 용어들은 개념상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있어서 일련의 교육목적은, 교육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 수업목표 등의 순위로 그 상·하위개념을 표시할 수 있다.

## 1.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현황

본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에서의 '교육목적'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목표'를 그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 일반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개발되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로 진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육목적'이라는 상위개념 아래에서, '교육목표'<sup>30)</sup>를 그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과거에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등에 대한 분석은, 1990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약칭함)에서 평가한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평가종합보고서」<sup>31)</sup>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에 대한 분석이 있다.<sup>32)</sup> 이같은 대교협의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에 관한 평가는 교육개혁의 과정에 있는 1997년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적과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같은 견지에서, 현재 32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와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들을 조사·정리하여 보았다.<sup>33)</sup> (이하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들은 1998년도 「한국

표'라 일컬으며, 때로는 '명세적 목표'라 지칭하기도 한다.

30) 예컨대 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교육목표는, 대학교 학과 교육의 성격에 기반을 두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갖게 될 여러 가지 특성과 이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수단(교과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1990년도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평가종합보고서」.

32) 이 보고서에서는, '문헌정보학과(당시 도서관학과)의 교육목적은 정제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다기보다는 상식적이고 불완전하게 표현되었고, 대부분의 학과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소수만이 소속 대학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일반적 목표와 함께 특수한 교육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평가하였다. 당시 문헌정보학 교육목적의 내용은, ①『도서관학 이론의 응용방법 및 기술의 교수, ②도서관학 이론의 교수, ③유능한 사서의 양성, ④유능한 정보처리전문가의 양성』의 순이었다. 상기 협의회에서 또 하나 지적한 점은 각 학과 사이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990년 당시에는 조사대상학과와 절반 정도가 교육목적(교육목표 포함)의 내용 중에 위에서 지적한 기본적인 목표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에 수록된 <부록 1>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1998년 3월 현재, 문헌정보학이 개설된 학과의 명칭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헌정보학과'로 지칭하고 있다.<sup>34)</sup>

이제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현재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목적들은 1990년 대 교협이 평가한 그것에 비하여,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비교적 정제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문헌정보학과가 신설된 대학에서도 세월이 경과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둘째,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의 표기에 대한 형식을 살펴보면, 제시된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에서 상위개념인 '교육목적'과 하위개념인 '교육목표' 각각의 개념설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다.<sup>35)</sup> 즉 상위개념을 '교육목표'로 하고 하위개념을 '교육방향' 등으로 설정하여 용어의 통일 및 개념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sup>36)</sup> 최상위개념인 해당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해당 학과의 '교육목적'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한 후, 문헌정보학 교육의 각 영역별 교과목들의 구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과제인 '교육목표'를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의 내용들을 요약·분석하여 보면, ①유능하고 자질있는 정보전문가<sup>37)</sup>(전문사서, 전문인, 정보전문사서, 주제전문사서, 정보처리전문가, 정

33) 金聖洙, "文獻情報學의 敎育目的 및 敎科課程에 관한 研究" 『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 발표회』 (일시: 1998년 6월 26(금) - 27일(토), 장소: 경상대학교 멀티미디어 정보관 10층 컨벤션홀), pp. 70-75. 에 수록된 <부록 1>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 참조 요.

34)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는 '도서관학과'라는 종래의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그 전신이 사범대학이었던 영향으로 인하여 '도서관교육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5) 즉,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교육목표'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교육방향'을 하위개념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위개념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하위개념을 '교육목표'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그밖에 상위개념을 '일반적 목표'로 제시하고 하위개념을 '구체적 목표'라 명기한 대학도 있다. 그나마 위와 같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일원화 하여 '교육목적'으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육목표' 항목에서 이들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도 허다하다.

36) 그밖에 상위개념을 '교육이념'으로, 하위개념을 '교육목표'라 명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상위개념을 '일반적 목표'라 하고, 하위개념을 '구체적 목표'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용어는 상위개념을 '교육목적', 하위개념을 '교육목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검색전문가 등 포함<sup>38)</sup>의 양성, ②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교수), ③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배양), ④사서교사의 양성, ⑤문헌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의 순<sup>39)</sup>으로 그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다.

①의 사항에서의 분석점은, 학부 문헌정보학과(또는 문헌정보학 전공)를 졸업할 때까지 이수한 학점 및 교육으로 과연 전문사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학부제 하에서 최소한 '복수전공제'와 '최소전공인정학점제'만이라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전문사서의 양성'을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적으로 내세워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sup>40)</sup>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에서 굳이 이 항목을 설정하고 싶다면,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소양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의 항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②의 '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교수)' 항목과 ③의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배양)' 항목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을 제시할 때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과 理想 및 교육방향을 어떤 내용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라고 사료된다.

37) 국내에서 '정보전문가'라는 용어의 사용은, 1985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李炳穆교수가 제1주제로 발표한 "200년대를 지향한 사서적의 역할"에서, '미래 사서적의 역할'을 논술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公論化되었다. 이때의 '정보전문가'라는 개념은, 주제면에서 보다 전문화된 정보전문가라는 의미한다(李炳穆, "200년대를 지향한 사서적의 역할", 『圖書會報』, Vol. 26, No. 6(1985. 11.12), pp. 13-23). 이후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 용어가 차츰 일반화되면서, 일반사서의 개념보다 심화되었거나 정보봉사에 있어서 종래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의 사서를 일컬어 이른바 '정보전문가'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38) 특히 이화여대·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와, 여자대학교가 '여성정보전문가(전문여성인력)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채롭다.

39) ①: 연세대를 비롯한 13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명시하고 있다. ②: 경기대학을 비롯한 8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명시하고 있다. ③: 부산대를 비롯한 4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표기하고 있다. ④: 한남대, 대전대 문헌정보학과에서 부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⑤: 명지대 문헌정보학과와, 부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40) 사서를 '일반사서(generalist)'와 '전문사서(specialist)' : 예컨대, 법률사서·의학사서·박물관사서 등' 등으로 구별한다고 할 때, '전문사서'는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해당 주제전문분야의 심화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전문사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주제분야의 학사과정 또는 복수전공자가 문헌정보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서가 해당 주제분야의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일정기간(예컨대, 3년 이상 등)의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주제분야의 전문사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 현황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를 교육목적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은 32개 대학 중 불과 8개 대학에 불과하였다.<sup>41)</sup> 이같은 결과는, 나머지 다수의 대학들은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의 개념으로 한꺼번에 표기한 경향의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기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기술한 8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본 결과, ①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무 교육, ②정보전문가 양성, ③정보검색(처리)전문가 자질의 함양 및 육성, ④정보매체 등의 전문지식 교육, ⑤인격의 교육, 봉사정신의 함양, 여타의 학과(전공)의 지원, 사서교사 양성 등의 순<sup>42)</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는, 그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열거하면서 詳述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문헌정보학 교육목표에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교육목표는 실제적인 교육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목표'의 설정내용에서는, 각 대학에서 크게 2가지 경향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즉,

첫째로 강남대학교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의 경우, 먼저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3영역 또는 5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강남대학교의 경우, 문헌정보학을 '①자료조직학, ②서지학, ③정보학'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이론교육 분야와 실무교육 분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경우, 문헌정보학을 '①정보조직, ②정보학, ③정보서비스 및 서지학, ④도서관경영학, ⑤기타'의 5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교육목표를 설정한 다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증개자이며 정보처리전문가인 능력있는 사서

41)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은 '경기대, 대구대, 계명대, 부산여대, 중앙대, 청주대' 문헌정보학과와의 경우이다. 그밖에 강남대, 대구효성카톨릭대의 경우도 교육목적 아래에서의 교육목표를 부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42) ①: 경기대, 부산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②: 중앙대, 대구대, 계명대에서 명시하고 있음. ③: 청주대에서 명시하고 있음. ④: 대구대에서 명시하고 있음. ⑤: 명지대에서 명시하고 있음.

의 육성을 위한 충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경우에는 사서자격증과 정보처리자격증을 가지는 전문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방향 3단계의 과정'을 설정하여 교육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방향'이라는 것은, ① 사회 각계 현장의 문헌정보관리 능력자를 육성하는 제1방향, ② 보다 심오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보다 높은 차원의 문헌정보처리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대학원 진학자를 육성하는 제2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라는 것은, ① 2급정사로서 사회 일선에 봉사하는 제1단계, ②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여 사회의 일선에서 한 차원 높은 봉사 와 실무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제2단계, ③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여 제1단계와 제2단계에 상응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학자와 문헌정보처리 연구관리자를 양성하는 제3단계이다. 그리하여 '2방향 3단계'의 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교육여건의 개선과 산학협동 및 학과의 선진적 특성을 살리도록 노력함을 본 학과의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의 교육목표 설정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 중에서 가장 수법적인 사례를 제시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 3.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설정의 개선 방안

위의 두 절에서 우리는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이들 현황에 따른 분석에 입각하여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설정의 개선 방안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제시의 현황에 있어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용어의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sup>43)</sup> 향후 각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설정할 경우, 대학교육에 있어서 최상 위개념인 '대학이념'에 입각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다음에 그 하위개념인 '교육목표'를 분리하여 明記하는 방법이

43) 3.1의 내용 참고 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제시한 문헌정보학 교육목적은 ①유능하고 자질있는 전문사서(정보전문가 등 포함)의 양성, ②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교수), ③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배양), ④사서교사의 양성, ⑤문헌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의 순으로 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sup>44)</sup>은 위의 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1999학년도부터 전국 대다수의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학부제 즉 '학부입학제'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및 '복수전공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정보전문가(전문사서 등 포함)의 양성"을 문헌정보학과와 최우선 교육목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현황은 그 문제점이 없지 않다. 즉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서 최소이수학점이 30-36학점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문헌정보학 전공 개설과목 중에서 최대한의 학점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50-70학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5)</sup> 이들 학점을 3학점 1과목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들은 10-23과목 정도 밖에 수강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학점과 과목들을 수강하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에 과연 이들 졸업생들이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사회가 인정할지는 더욱 의문이다.<sup>46)</sup>

그리하여 위에서 제시된 문헌정보학 교육목적의 종다수 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열 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항목인 '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의 교육'과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능력의 함양'이라는 항목을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이들을 상호결합한 형태로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부제의 상황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설정에서는, '정보전

44) 3.2의 내용 참고 요.

45) 즉, 부분적인 학부제에서도 총이수학점은 대개 '140학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4년 동안 이수하는 학점 가운데서, 교양학점 34학점, 복수전공학점 36학점을 제외하면, 전공이수학점은 최대한 수강한다 하더라도 70학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교적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20학점을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전공(제1전공) 학점은 50학점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46)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전공을 획득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를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주목적인 학부제 하에서, 종래와 같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특정주제학문의 '정보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주장의 교육목적 설정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은 정보전문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인재 즉 정보전문가의 자질을 함양·육성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향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보전문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배경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가를 양성한다'는 실용주의의 입장 보다는, 오히려 "문헌정보학 이론 및 응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정보전문가의 자질을 함양시킨다"는 문헌정보학 이론 및 체계의 구축과 실무의 병행이라는 要旨을 관점으로 하여, 그 교육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문헌정보학과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의 교육목적에는 국가와 사회 일반의 요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 학부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는 그 교육목적의 설정에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목표의 설정에서는, 각각의 문헌정보학 전공은 소속된 대학 학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교육목표는 소속 대학의 교육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소속 대학의 교육목표에 포함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념과 해당 전공 고유의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

1997년 현재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의 현황에서는, 강남대학교와 청주대학교의 경우, 문헌정보학을 3영역 또는 5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사서자격증과 정보처리자격증을 가지는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2방향 3단계의 과정'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진출을 위한 실무교육(제1방향)과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론교육(제2방향)이라는 2방향과, 실무자 육성교육(제1단계 : 2급정사서)과 연구와 실무응용 교육(제2단계 : 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자와 연구관리자 교육(제3단계 : 대학원 박사과정)이라는 3단계를 교육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는 문헌정보학 교육활동의 근거이며, 교육활동 평가의 기준이다. 적절하고 성취 가능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의 목표가 교수 개개인의 임의적 해석과 실행에 맡겨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sup>47)</sup> 또한 교육목표의 기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중요도와 실현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4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년도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평가종합보고서, (서울 : 대교협, 1990), p. 48.



1997년 현재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무려 19개 대학교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sup>48)</sup> 석사과정을 개설한 대학교와 학부만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그 교육목표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안은 再考하여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5개 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까지 설치하고 있는 현황<sup>49)</sup>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밖에 문헌정보학 전공이 학부에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목표의 설정에서는 대학원 진학 학생들을 위한 사항도 교육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는 학제의 구비 즉 학부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개설 여부에 의거하여, 그 교육목표의 설정 및 기술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대학교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학과의 교과과정을 영역별로 구분한 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같은 교육목표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같은 유형을 먼저 설정한 후에,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2차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구체적이면서 실행가능한 점이 고려되었는가? 하는 점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개설되었는가하는 문제도 살펴 보아야 할 점이다.

요컨대,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에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과 理想 및 교육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표·교과과정은 구체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교과과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되고, 학부제로 전환되는 문제 등의 여러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8) 1997학년도 현재,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동덕여대, 명지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주대, 전남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의 19개교에 이른다.

49) 1997학년도 현재, 성균관대(1974), 연세대(1980), 중앙대(1983), 이화여대(1988), 부산대(1991), 상명대(1992)에서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 IV.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과과정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은 그 대학 특유의 배경과 자원을 심분활용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외부의 간섭이나 지배에 구애됨이 없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급변하는 정보문화를 주도하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이 봉사하는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환경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sup>50)</sup> 때문에 이같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에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문헌정보학의 각 영역별로 균형있게 짜여진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거에, 문헌정보학 교육 전반에 대한 교과과정의 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로는 IFLA와 UNESCO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51)</sup> UNESCO가 제시한 학부 교과과정의 기본 목표는 상급관리자나 연구개발인력의 공급은 대학원과정에 맡기고, 학부는 중간관리자나 실무담당자를 교육·육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도서관 사서나 문헌사(도큐멘탈리스트)·정보전문가 등 여러 형태의 전문가 사이의 공동기반이 되는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목은 이론과 원리를 강조하지만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과 실습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기초·이론적인 학문주제와 전문기술주제를 부전공제를 통해 함께 수강토록 하고, 어학교육의 중요성과 방학을 이용한 현장실습 등을 그 운영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2)</sup>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전공교과목의 형태와 개설과목수에 관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 <부록 2>에 제시된 교과과정<sup>53)</sup>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sup>54)</sup>

50) 정진식,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관보」 28권 6호(1991), p. 5. 참조.

51) 특히 UNESCO의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적 환경과 교육기관의 자체 환경에 따라 교과과정을 융통성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5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 65.

53) 金擘洙, "文獻情報學의 教育目的 및 敎科課程에 관한 研究" 「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일시: 1998년 6월 26(금) - 27일(토)), 장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정보관 10층 컨벤션홀, pp. 76-80. 에 수록된 <부록 2>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참조 요.

54) '전공기초'에는 교양과정에서 개설되는 '학과기초'도 포함되어 있음. 명지대의 경우, 전공1단계(최소이수단위 40학점)를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공필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전

〈표 1〉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개설 교과목수

대학교명	과 목 수			총개설 과목수	대학교명	과 목 수			총개설 과목수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강 남 대	4		21	25	상 명 대		6	19	26
건 국 대	5	5	20	30	서울여대		4	18	22
경 기 대		10	23	33	성균관대	2		34	36
경 북 대	2		23	25	숙명여대		8	22	30
경 성 대	2	7	21	30	신 라 대		8	26	34
계 명 대		5	28	33	연 세 대	2		36	38
공 주 대	6	13	15	34	이화여대	1		26	27
광 주 대	4		29	33	전 남 대	4		26	30
대 구 대		4	25	29	전 북 대		4	31	34
효 가 대		15	14	29	전 주 대	2	4	31	37
대 진 대		10	26	36	중 부 대	3	9	22	34
덕성여대		8	16	24	중 앙 대	5	4	33	42
동덕여대	4	9	22	35	청 주 대		4	26	30
동 의 대	6	4	22	32	충 남 대		8	35	43
명 지 대		14	22	36	한 남 대		11	24	35
부 산 대	4	1	35	39	한 성 대	4	8	25	37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과 전공과목의 교육은, 전국의 모든 문헌정보학과가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등으로 3구분하고 있다. 전공기초과목의 수는, 전공기초과목을 정하지 않은 학과를 제외하면, 1과목부터 6과목까지 나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필수과목의 경우도 전공필수과목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부터 15과목까지 설정한 대학도 있다. 전공선택과목의 경우는 최저 14과목부터 최고 36과목까지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과과정에 관한 모형의 제시는, 1989년에 대교협이 발간한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교과과정 모형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sup>55)</sup>

공필수에 편입하였음.

55) ① 박준식, “도서관학의 체계와 전개,” 『도서관학보론』 (대구: 계명대 출판부, 1979), pp. 42-60. ② 김정소,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5집(1978), pp. 1-31. ③ 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체문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대교협이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 기본방향은, 1980년대에 발표된 도서관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연구결과에 대한 현직 도서관학과(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sup>56)</sup> 이 모형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과정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하였다. 7개분야는 입문(이론),<sup>57)</sup> 기술업무,<sup>58)</sup> 참고봉사/서지,<sup>59)</sup> 도서관경영,<sup>60)</sup> 정보시스템,<sup>61)</sup> 어학,<sup>62)</sup> 기타<sup>63)</sup> 분야 등으로 나누었다.<sup>64)</sup> 그런데 이 교과과정 모형은 문헌정보학 교육 영역을 세구분하였으면서도 문헌정보학 교육 현장과는 상당히 괴리되고 사변(思辨: speculation)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근자에 김명옥 교수는 문헌정보학의 교육 영역을 ①문헌정보학 기초, ②자료조직, ③ 도서관경영, ④참고봉사, ⑤서지학, ⑥정보학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65)</sup> 김교수의 이러한 영역 구분은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현장의 이론과 경험 및 각 영역 교육의 일관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영역 구분은 정보사회에서의 변화양상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각 영역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조직 영역에서는 종래에 분류학·목록학·분류/목록실습 등을 교육하여

하게세미나 발표논문 요지, (서울: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1996), pp. 41-51. ④ 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pp. 20-33. ⑤ 구분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1996. 6), pp. 3-50. ⑥ 김명옥,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p. 121-138.

- 5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 65.  
 57) 입문분야: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서지학개론, 커뮤니케이션론, 이용자연구, 출판/유통론, 국가/국제정보정책, 도서 및 인쇄사.  
 58) 기술업무분야: 장서구성론, 자료조직론, 고급분류, 고급목록, 고서정리법,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색인초록법, 컴퓨터정보처리법, 정보검색론, 문서관리, 고문서학.  
 59) 참고봉사/서지분야: 이용자봉사, 참고자료, 특수매체론, 특수이용자봉사, 아동청소년자료, 독서지도, 이용자교육, 사회과학서지, 인문과학서지, 과학기술서지, 온라인탐색, 한국고전서지, 중국서지.  
 60) 도서관경영분야: 도서관경영론, 대학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보존/복제, 도서관건축론, 도서관조사통계론, 도서관자동화.  
 61) 정보시스템분야: 정보수학, 시스템분석, 사무자동화, 컴퓨터프로그래밍, DBMS(DB 관리론), 인공지능, 정보이론, 전산입문, 정보기술.  
 62) 어학분야: 한서강독, 일서강독, 영서강독.  
 63) 기타: 도서관학연구법, 타자, 사서실습, 졸업논문.  
 6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p. 76-77.  
 65) 김명옥,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 128.

왔으나, 차후 이 영역에 색인·시소러스·메타데이터 분야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의 조직 및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영역을 '정보조직' 영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고봉사(정보조사제공) 및 서지학 영역에 있어서, 서지학 영역은 종래 고서지학(古書誌學) 특히 형태서지학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제(체계)서지학의 관점에서 과거 및 현대의 서지정보 즉 각 학문별 주제서지정보(원)의 작성과 이용법 및 첨단 멀티미디어정보(원)의 탐색법 등이 중점적으로 교육되어야만 비로소 정보사회 및 학부제하에서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서지학의 영역 즉 정보서비스(정보조사제공) 영역과 공집합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에서의 멀티미디어정보제공 및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정보의 제공, 그리고 전자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시스템(ILL) 및 전자적 형태의 원문제공(EDD) 등 정보학에서 실현하는 첨단정보활용에 관한 이용법들과 인터넷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영역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지학 영역과 정보서비스 영역을 통합하여 '참고/서지(reference and bibliography)정보서비스' 영역으로 일원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도서관경영 영역에서는 기존의 교과목 이외에 '각종 도서관 경영정책론', '첨단정보센터의 신경영기법론',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정보정책론' 등의 분야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영역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도서관/정보센터경영'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학 영역은 종래 도서관자동화(전산화)의 제반 기법으로 대변되었다. 최근들어 이 영역에 지식구조론·정보통신 네트워크·정보공학·전자도서관 구축 등의 측면이 가미됨으로써 급격하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그밖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일반 영역에서는 '문헌정보학 입문'과목 및 각 영역의 교육에 필요한 공통분야 예컨대 '정보기술론(인터넷이용법·프로그래밍·WWW 등)·어학 분야(인터넷 영어 포함) 등의 기타 영역을 하나로 묶어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영역을, ①정보조직, ②참고/서지정보서비

스, ③도서관/정보센터경영, ④정보학, ⑤문헌정보학 일반 등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필자에게 회신된 전국 32개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을 위와 같은 5대 영역별로 개개 교과목들을 정리한 <부록 2>(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 <부록 2> 참조)에서 나타나는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 개설교과목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수는, 서울여대의 22과목부터 충남대학교의 43과목까지 다양하며,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와 평균교과목수는 32과목 정도이다. 즉 매학기 평균 16과목, 1년 평균 32과목을 개설한다는 의미이다.<sup>66)</sup>

둘째, 각 과목의 학점수는 많은 대학에서 매 과목당 3학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7)</sup>

셋째, 학부제의 도입 이후에 전공기초<sup>68)</sup> 및 전공필수 과목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을 평균하면, 전체 개설 교과목수의 약 22%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연대·이대·성대의 경우, 불과 1-2개 과목만을 전공기초과목으로 채택하고, 전공필수과목은 아예 폐지한 실정에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곧 전공선택과목의 선택폭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문헌정보학계 일각에서는, 문헌정보학 각 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공필수와 선택의 채택이 바람직하다<sup>69)</sup>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sup>70)</sup> 그러나 학부제에서는 전공필수과목의 지정을 거의 억제하고 있는 경향<sup>71)</sup>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66) 매 학기당 개설과목이 16과목이 초과하는 대학의 경우, 이들 교과목들이 과연 모두 개설되느냐의 문제는 의문이다.

67) 그 이유로써, 학생들은 1학점당 1시간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례로써, 분류실습·목록실습·교서강독 컴퓨터실습 등의 교과목의 경우 2학점 4시간으로 개설하였을 때의 수강신청율은, 3학점 3시간의 경우보다 그 신청율이 대폭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수강 노력에 비하여 학점수가 적을 경우를 회피한다는 의미이다.

68) 계열기초, 교양에서 개설되는 문헌정보학과 전공안내과목, 학부(과)기초 포함.

69) 김명옥,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p. 135.

70) 이 문제는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에서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한상완 교수)의 발표 당시에도 몇몇 교수들이 이른바 핵심과목의 전공필수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71) 현재 대학교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학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전공필수 과목을 폐지하는 경향이 속출하고 있다.

전공필수과목의 폐지 내지 역제는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과과정의 운영에 있어 전공필수과목을 많이 지정하였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필수과목만 개설되고 나머지 선택과목은 폐강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쉬운 경향을 감한 듯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제하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 설정에서는, 위에서 논술한 4개 주요영역의 각 교과과목들을 균등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부제하에서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교육부의 평가영역에서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sup>72)</sup>

또한 내년으로 다가올 학부제하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총교과목은 많아야 60학점 즉 20개 교과목 정도에 국한되어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sup>73)</sup> 따라서 개설교과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에, 각 교과목의 강의내용에 충분한 완전성 및 내실성을 기하여 미래지향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을 완료함으로써, 학부제에 대한 만반의 준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부록 2>에 보이는 교과과정 현황에서 각 영역별로 배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수를 상호비교하여 보면, 정보조직 영역의 교과목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학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하여 훨씬 많은 과목이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보학 영역 교과목의 급증현상은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전자도서관·정보공학·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영역과, 문헌정보학에서 다루는 각종 정보기술이 제학문분야와 결합 내지 유대강화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문헌정보학 제영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각 영역별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상 '정보학 영역'과 '타 영역'이 공통 또는 중복되는 부분 과목의 경우, 양 영역의 교육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 과목을 '타 영역'에서 흡수하여 미래지향적인 교과목으로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섯째, 각 영역별 교과과정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명을 살펴보면, 유사한 성격의 교과목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는 현상이 상당한 비율을 차

72) 주 27)의 본문 참조.

73) 아울러 각 교수당 책임시수는, 현재 9시간에서 차후 6시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학부제하에서의 체계적이고 내실성이 더욱 충만한 강의의 진행이 요구된다.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목의 개설은 해당 학과 특유의 배경과 자원을 심분 활용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나 지배에 구애됨없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목명 및 그 내용을 고수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교과목명으로 改名합과 동시에 그 교육내용 또한 이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을 교육받는 피교육자는 교육의 이수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이 대학에서 교육받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공내용으로 적어도 5-10년후의 미래에 다가올 그 시점까지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내용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각 영역별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사례중심·현장중심의 교육(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sup>74)</sup>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물론 전문직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너무 실무중심으로 치달았을 때에는, 델빌 듀이의 실용주의 중심교육이 가져온 폐단<sup>75)</sup>을 답습하기 쉽다. 따라서 학부제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철학적 기반 및 理想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에 이론화·체계화를 보다 심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론적 기반의 구축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또한 학부만 수료하고 현장으로 진출하였을 때,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중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과과정의 추이(推移)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도서관/정보센터실습', '사서실습' 등으로 지칭되는 현장실습 과목을 지목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이 과목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2학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학부제로 개편되면서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폐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과목의 축소로 인하여 도서관/정보센터실습 과목을 부득불 폐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10개 대학교<sup>76)</sup>의 경우, 도서관/정보센터실습 과목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학점을 3학점으로 상향조정된 사례도 있다. 도서관/정보센터실

74) 김명옥,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pp. 134-135.

75) 본고의 제2장의 내용 참조 요.

76) 경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동의대학교, 대구대학교, 공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습 과목의 명칭도 또한 다양하다.77)

여덟째, 문헌정보학 교육 교과과정의 시행에서 차후의 과제는, 30-36학점만을 이수 하는 제2전공 수강학생들(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복합전공 포함)을 위한 별도의 강좌(class)가 개설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2전공 이수학생과 주전공(제1전공) 이수학생을 혼합하여 강좌를 개설할 경우, 복수전공학생들이 주전공 이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례로, 종래의 '부전공제'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부전공 이수학생들이 획득하는 학점이 강좌개설 해당학과와 전공학생들이 성취하는 학점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88)는 이유로 인하여, 부전공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사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2전공자를 위한 교과과정에서는, 복수전공 이수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체 이수학점의 2/3 이내 즉 24학점 이내에서 복수전공 지정과목을 설정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관점은, 학부제 하에서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이 과연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79) 그러나 학부제하에서 각 전공의 총교과목 개설

77) ① 경복대: '사서실습', ② 이화여대: '도서관실습', ③ 전남대: '전문업무실습', ④ 부산여대: '사서실습', ⑤ 전북대: '사서실습', ⑥ 동의대: '사서실습', ⑦ 대구대: '정보센터현장실습', ⑧ 공주대: '도서관실무실습', ⑨ 숙명여대: '도서관실습', ⑩ 강남대: '실무실습'.

78) 필자가 교직에 처음 들어섰을 때인 1983년 당시에는 부전공제도가 그래도 활발한 편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부전공제도가 차츰 유명무실해져 감에 즈음하여, 매 해마다 학생들에게 부전공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꾸준히 질문에 보았다. 그 대답은 '해당학과 전공학생들은, 당해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강하였기 때문에, 각 개설 교과목의 성적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학과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중점적인 경향 및 취향 등을 이미 認知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답안의 작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전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業論이었다.

79) 왜냐하면, 이는 학부제하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과연 몇 학점을 이수하여야 종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에게 발간하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부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사서자격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발송한 공문(문정협: 97-05(1997. 9. 1)), 제목: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이사회 의결사항) 참조)에서 나타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부제의 도입에 따라 사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학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응답자의 77%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2)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 법적 규정에 찬성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서,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가 57%(49명)나 되었으며, ①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② 사서

학점은 많아야 60학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문제는 교육개혁 및 학부제의 원칙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본론에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첫째,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육개혁의 분수령이 된 학부제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현황에 관하여 각각 조사·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설정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셋째, 이같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조직된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의 영역을 5대구분한 다음, 각 영역별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집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부제를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현실상의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전국 문헌정보학과는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반강제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다.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현재보다 더욱 명확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아울러 명시된 문헌정

---

직의 권위와 공신력 고려, ③ 전문대학과 형평성 고려, ④ 이공계열과 같은 전문성 요구라는 대응의 순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 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이사회에서는, ① 전문사서의 배출에 대한 질적저하와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정학점(예컨대, 54학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② 지정학점을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2급 정사서 자격증'을, ③ 기준이하의 졸업생에게는 '준사서 자격증'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 결과, 1997년 12월에 개최된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은, "①전공과목을 5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② 54학점 미만 이수한 졸업자나 전공자에게는 '준사서 자격증'을 수여한다"(문정협: 97-07, "1997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참조)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의결사항이 실현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학부제하에서 최소학점이수제에 위배되는 위와 같은 의결을 과연 교육부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보학 교육의 교육목적 등에 의거하여 일련의 교과과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한다면, 학부제의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하여 명확한 교육목적과 교과과정에 준거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때 비로소 학부제의 장점들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예측되는 학부제의 여러 문제점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현황에 관한 항목에서는, 우선 상위개념의 '교육목적'을 설정한 후에, 이에 입각하여 하위개념인 '교육목표'의 구체적인 설정 및 제시가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제시한 교육목적은, ① 유능하고 자질있는 정보전문가(전문사서 등 포함)의 양성, ② 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교수), ③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배양), ④ 사서교사의 양성, ⑤ 문헌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의 순으로 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학부제 상황에서 제한된 학점의 이수로서는 종래와 같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특정주제학문의 '정보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주장의 교육목적의 설정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 설정에서는 정보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인재 즉 정보전문가의 자질을 함양·육성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한다. 왜냐하면, 향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보전문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배경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제시된 문헌정보학 교육목적의 종다수 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열 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항목인 '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의 교육'과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능력의 함양'이라는 항목을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들을 상호결합한 형태로 문헌정보학의 교육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부제의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교육목적 설정에서는, "문헌정보학 이론 및 응용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정보전문가의 자질을 함양시킨다"는 문헌정보학 이론 및 체계의 구축과 실무의 병행이라는 要旨를 관점으로 하여, 그 교육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적에는 국가와 사회 일반의 요구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 학부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는 그 교육목적의 설정에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셋째, 전국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표의 현황에 관한 항목에서는, 교육목표의 기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중요도와 실현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기술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표는, 상기 교육목적의 의거하여, 첫째로 학생들이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한 후에 도서관/정보센터 현장 진출을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로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등을 위한 보다 심오한 이론교육을 위한 또하나의 방향, 즉 양대(兩大) 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현황과 분석에서는 문헌정보학을 ① 정보조직, ② 참고/서지정보서비스, ③ 도서관/정보센터경영, ④ 정보화, ⑤ 문헌정보학 일반이라는 5대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을 정리·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 영역별 교과과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제의 상황하에서는 전공필수과목을 철폐하고 전공선택과목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을 제외한 4개 주요영역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편성방안 제안하였다. 아울러 각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지향적으로 改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철학적 기반 및 理想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에 이론화·체계화를 보다 심화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복수전공자를 위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상기 연구의 時限은 1998년 6월말 현재까지의 상황에 국한하여 논술하였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부제에 관한 논의가 분주하다. 차후 전면적으로 시행될 학부제와 관련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새로운 양상 및 그 변화에 관하여, 학부제가 정착될 단계인 3-4년 후에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발표할 것을 여기에 明記하여 둔다.

요컨대, 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에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과 理想 및 교육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도 구체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그리고 교과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되고, 제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A Study on Objectives and Curriculum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im, Sung-Soo\*

###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surveyed how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orientation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under current school system should be form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obstacles in overcoming problems and setting successfully education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under the school system by Ministry of Education. To get over this clear objectives and goals of education must be presented. According to clarified goal of education curriculums must be formed systematically.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setting goal of education emphasizing on paralleling of fortifying of theory and conducting practical business rather than training of Information specialist.

Second, in analysis of curriculum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t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1) 'information organization', (2) 'reference/bibliographical information', (3) 'management of library/ information center', (4) 'informatics' (5)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general', then courses of each category are arranged and analyzed. As a result balanced development among categories and education is required.

In short educational go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must show basic philosophy, ideal,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deal that educational go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be presented concretely and in feasible way. Thus in this context the goal and objective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must be devised and amended, supplement as circumstances change.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ngju University.